

KIA 김선빈·안치홍 '올스타 키스톤' 될까



안치홍



김선빈

프로야구 '별종의 별' 올스타전 베스트 10 투표
 웨스턴리그 유격수-2루수 부문 강력한 후보로

▲키스톤 콤비 = 야구에서 2루수와 유격수를 묶어서 이르는 말. 2루를 중심으로 더블플레이가 이뤄지는 내야 수비의 핵심이다.

올스타전을 누비는 '꼬꼬마 키스톤'을 볼 수 있을까?

29일 프로야구 별 종의 별을 가리는 올스타전 베스트 10 투표가 시작됐다.

KIA는 2008년부터 4년 연속 웨스턴리그 최다 베스트 10을 배출한 올스타전의 단골 손님. 올 시즌에는 윤석민(투수), 김상훈(포수), 최희섭(1루수),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김원섭·이용규·이준호(이상 외야수), 나지암(지명타자)이 베스트 10에 도전한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의 4년 연속 베스트 10이 유력한 가운데 이범호·이용규도 막강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유격수 득표 현황에도 김선빈과 KIA 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김선빈은 2010·2011년 두 차례 올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지만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감독추천으로 올스타 유니폼을 입었던 2010년, 연장전에 대비해 몸을 풀었던 김선빈은 9회말 황재균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2011년에는 당당히 베스트 10으로 팬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코뼈와 잇몸뼈 골절 부상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타이틀을 반납해야 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안치홍·김선빈, '꼬꼬마 키스톤'의 간절한 소원 중의 하나가 올

김선빈

두차례 뽑히고도 출전 못해

넥센 강정호 맹활약 위기감

안치홍

"미스터 올스타 다시 한번"

4연속 선정·최다득표 도전

타전에서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부상으로 무산됐던 이들의 동반출전 여부는 김선빈이 강력한 라이벌 넥센 강정호를 만나면서 올 시즌에도 미지수다.

홀런과 장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강정호는 불붙은 방망이로 득표율에서 김선빈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빈의 올스타 도전기는 이제부

터 시작이다. 김선빈은 올 시즌 4차례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결승타를 날리는 등 재치있는 타격으로 팀의 테이블 세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김선빈이 베스트 10을 노린다면 안치홍은 최다득표에 도전해볼 만하다.

안치홍은 웨스턴리그 2루수 후보인 서동욱(LG), 한상훈(한화), 서건창(넥센)에 비해 한발 앞선 활약으로 투표 첫날부터 웨스턴리그 2루수 부문은 물론 전체 득표수에서도 선두권에 포진했다.

여기에 지난해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갈아치운 이대호가 일본으로 건너갔고, 2010년 최다득표의 주인공 홍성흔은 이승엽(삼성)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다. 또 지난해 전체득표 2위에 빛나는 포수 조인성은 SK로 팀을 옮기면서 이스턴리그에서 강민호(롯데)와 대결을 벌이는 등 '대전운'도 좋다.

KIA 공수의 핵심 '꼬꼬마 키스톤'이 실수는 줄이고, 공격력은 키워서 치열한 순위 싸움과 베스트 10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사랑 봉사단 모집

팬 30명으로 구성

K리그 스타들과 사랑을 실천할 'K리그 사랑 봉사단'을 모집한다.

K리그 16개팀 감독과 각팀 대표 선수들이 오는 6월 4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해비타트 파주 현장에서 팬들과 함께 'K리그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갖는다. 30명의 팬으로 구성된 'K리그 사랑 봉사단'은 온라인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으며, 참여를 원하는 만 16세 이상의 팬은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역, 연락처)과 간단한 자원봉사 지원 동기를 적어 내달 1일까지 이메일(event@kleague.com)로 보내면 된다.

광주에서는 최만희 감독과 주장 김은선이 참여하며 김상식(전북), 최진수(울산), 신형민(포항), 광희주(수원), 하대성(서울), 김창수(부산), 이은재(전남), 김병지(경남), 송진형(제주), 김성환(성남), 유경렬(대구), 정인환(인천), 김치곤(상주), 정경호(대전), 배효성(강원)도 함께 한다.

한편 K리그는 28일 마무리 된 14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2주간의 A매치 휴식기에 돌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또 안타

클리블랜드 승리 이끌어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하루 만에 안타 행진을 재개했다.

추신수는 29일(한국시간)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볼넷 1개와 1득점을 올린 추신수는 타율 0.268을 기록했다.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고른 추신수는 3회말 좌전안타를 날렸다. 클리블랜드는 8-5로 승리해 3연패에서 벗어나며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메리츠솔모로오픈 개막

올 시즌 국내 프로골프 네 번째 대회인 제 7회 메리츠솔모로오픈(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이 31일 경기도 여주 솔모로컨트리클럽 퍼시먼·체리코스(파71·6771야드)에서 4라운드 일정으로 시작된다.

강경남(29·우리투자증권), 홍순상(32·SK텔레콤), 박상현(29·메리츠금융그룹) 등 국내 골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해 우승경쟁을 벌인다. /연합뉴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